

초등 음악교과전담제 운영실태 연구

권 수 미* · 김 혜 진**

본 연구는 우리나라 초등음악교육의 운영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음악교사의 전문성 증대를 위한 교사 양성제도 제시(제안)를(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도교육청과 177개 지원교육청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음악전담교사의 심화교육과정 이수여부를 파악하였다. 이 중 충남, 충북, 전남, 전북에 소재한 초등 음악전담교사 589명 중 103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교과전담제도'는 초등 교사의 심화교육과정 전문성보다 학교장의 권한, 학교 행정상의 이유, 교사의 개인적인 사유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교사의 교과 전문성을 고려한 교과전담제의 운영, 초등 음악교육환경 개선, 음악교과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사연수 프로그램 등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초등교육, 교과전담제, 음악전담교사, 음악교육

차 례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II. 이론적 배경

1. 초등 교과전담제의 특징
2. 외국 초등 교과전담제의 운영 실태

III. 전국 초등 음악전담교사의 현황파악

1. 연구방법 및 자료 분석
2. 초등 음악전담교사의 분포도
3. 초등 음악전담교사의 현황파악
4. 초등 음악교과의 운영현황 파악

I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조교수

** 서원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학급담임제’와 ‘교과전담제’의 교사체제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학급담임제는 학생들의 교과지도와 생활지도 대부분을 교사 한 명이 한 학급을 맡아 운영하는 방식이며, 교과전담제는 학급담임제와는 달리 특정 교과를 특정 교사가 전담하여 지도하는 방식이다. 교과전담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초등 교원양성 대학에서는 각 대학별로 심화교육과정을 통해 예비초등 교사들을 심도 있게 교육하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서의 교사배정은 심화과정으로 이수한 교과와 늘 일치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초등학교 전담교사 운영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성기훈(2001)과 김문규(1992)는 ‘초등학교에 전담교사 부족’과 ‘교사들의 교과전담 기피’가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초등 교사들은 예·체능 과목의 교과전담을 기피한다고 조사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 예·체능 과목의 경우에는 다른 교과에 비해 교사의 과목별 전문적 자질이 높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학급담임제에 따른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질 좋은 교수-학습 교과 교육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시작한 교과전담제는 그 취지와는 달리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의 특기·전공과 무관하게 산휴예정교사나 병약자, 신규 임용교사나 명예퇴직 예정교사 등의 교사를 전담교사로 배정하고 학교 편의대로 운영하고 있어 매년 교과 전담교사가 바뀌는 등의 문제점이 계속 보고되어지고 있다(석선훈, 2005).

초등교사가 되기 위해서 예비교사들은 대학 4년 동안 12개 교과를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있지만 모든 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특히 음악 교과의 경우에는 심화교육 선정과정에서 대학 입학 당시 실기시험을 추가적으로 치르는 것이 아니고 입학생들이 지원한 희망 교과 순서대로 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범대만큼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 양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에 문경숙(2009)은 “초등 교사들은 음악적 지식이나 실기 능력에 있어서 전문성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음악 교과 지도에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정다운(2011)은 “음악 수업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요인 중 하나는 교사들의 음악 전문성”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교사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음악교과의 경우 교사는 음악실기 및 수업 준비로 인해 수업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60년대 초등 교사들의 수업운영에 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음악,

미술, 체육, 과학에 한해 교과전담제가 실험적으로 적용되었고, 1975년에는 음악, 미술, 체육 교과와 교과 전담교수제도를 시범·운영하였다. 1979년 교육부지정 연구학교와 일부 사립초등학교에 예·체능 교과를 중심으로 교과전담교사를 배치시켜 이를 실험·연구하여 1992년 우리나라 초등학교에 교과전담제를 실시하였고, 2001년에는 교사의 수업시수를 줄이고 전공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높인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이에 임미경(2003)은 “초등학교 전담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현재 초등 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교육대학에서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으로 나누어 교과전담교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예비 초등 교사들에게 초등 교과에 필요한 모든 과목을 교육하고 교육현장에서 학습 지도가 가능하도록 구성하며 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교원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초등 음악교과 전담교사 양성의 필요성은 단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며, 미국(3~4학년부터 적용), 영국(3학년부터 적용), 일본(5학년부터 적용), 유럽의 경우 이미 보편화 되어진 것이 사실이다(이일용, 2000).

2014년 9월 22일자 연합뉴스에 보도된 기사에 의하면 ‘충남 초등 체육전담교사 10명 중 9명 비전공자’라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초등 체육전담교사 285명 중 체육을 심화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교사는 21명(7.1%)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264명은 미술이나 음악을 이수하고 체육수업을 전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청남도 전체 421개 초등학교 가운데 237개 학교에는 아예 체육 전담교사 조차 없이 학급담임교사가 체육수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체육 전담교사의 부족과 타 전공교사가 수업을 담당함으로 인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나라 초등학교 예·체능 전담교사 운영 현황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초등학교 음악전담교사의 현황파악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 음악전담교사들을 대상으로 초등 음악교육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전문성을 갖춘 음악교사 양성을 위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 음악전담교사들의 현황 및 문제점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DB’를 확보하여 전국 17개 도교육청과 177개 지원교육청 소속 전국의 6,145개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초등 음악

전담교사들이 대학 심화교육과정으로 음악을 이수하였는지 여부와 우리나라 전체 교사 수 대비 음악전담교사 수의 비율을 조사하였다. 이 중, 충청남도(N=167), 충청북도(N=103), 전라남도(N=103), 전라북도(N=216)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배정된 음악 전담교사들(총 589명)을 대상으로 초등 음악교과 운영에 관한 간단한 설문 도구를 학교 메일로 발송하였으며, 이 중 17%인 103명이 회신·응답하였다(2014년 5월 25일~2014년 5월 30일 기준). 또한 각 시·도별 교육청 담당자의 전화인터뷰 및 e-mail 등을 통해 음악전담교사의 심화교육과정 이수여부를 파악하였다(2014년 5월 10일~2014년 10월 5일).

본 연구에서는 전국 초등학교 음악전담교사의 교육현황을 2014년 4월 1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DB’ 자료조사 기준일로 제한하였으며, 조사에서 나타나는 학교 수는 신설학교, 기존학교, 휴교, 분교만 포함하였고, 교원 수는 정규교원과 휴직교원, 기간제교원만을 포함하였다. 조사연구에 있어서도 충북, 충남, 전남, 전북 지역의 초등학교 음악전담교사들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졌으며, 교육청의 자료 부존재 또는 학교운영상의 문제로 자료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문서상의 답변 및 전화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초등 교과전담제의 특징

교과전담제는 ‘한 교과 또는 상호간에 관련이 깊은 교과의 몇 개를 각 교사가 담당하여 학생지도를 하는 조직’이라고 정의되어진다(교육학 용어사전, 1989). 이는 20세기 중반이후 경험주의에서 학문중심 주의로 회귀하는 교육사조에 따라 기존 학급담임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특정교과를 특정교사에게 전담하게 함으로써 담임교사의 수업시수를 경감시켜주고 더 나아가 초등학교 교과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교과전담제에 대한 시범연구를 시행해오다가 1986년 5월 25일 교육개혁협의회에서 교과전담제에 대한 단계적 확대 방안을 확정 발표하여, 1992년부터 음악, 미술, 실과를 중심으로 교과전담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지난 1998년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과전담제 운영방안으로 발표한 공문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33조(초등학교 교원의 배치 기준) 2항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는 각 학급 담당교사 외에 음악, 미술, 체육,

영어, 기타 교과와 전담교사를 둘 수 있으며, 그 산정 기준은 학교별로 3학년이상 3학급마다 0.75인으로 하되, 학교별 배치 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교과전담제의 장점에 관해 배종근·정태범(1991)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교과전담제의 장점은 학습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게 되며, 철저하고도 엄밀한 학습이 전개되어 교육과정 운영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으며 교재 연구나 교수 자료의 제작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학습지도의 방법과 기술이 전문화되어 학습에 능률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담임교사의 취미나 개인별 능력 차이에서 기인되는 교과별 편중 요인이 제거될 것이고, 생활지도 면에서는 여러 교사와의 만남을 통해 자기의 개성을 자각하고 신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평가 방법이 개선되고, 각 교과목에 대한 성적 처리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배종근·정태범, 1991, 445).

이처럼 교과전담제는 전문적인 교사의 역할로 인해 효율적이고 수준 있는 학습지도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예·체능 교과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지도로 수업의 질이 향상될 수 있으며, 수준 있는 학습지도가 가능하고 교재 연구나 수업 준비에 관한 교사의 부담감이 줄어 효율적인 학습지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초등학교의 경우 12개의 교과를 모두 교과전담제로 운영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각 교과간의 연결성이 결여되어 총괄적인 교과지도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초등학교 기초교육이 전문지식 위주의 교육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여러 명의 교사에 의해 지도가 이루어지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도가 어려워 학습지도 이외에 아동들의 인성 및 생활지도가 어려워질 수 있다(한채봉, 1991).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경우 현실적으로 교사들의 수업 부담을 줄이고 수업에 필요한 교재연구 시간을 확보하여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교과전담제는 필요한 제도임에 분명하다(마숙자, 2009; 김선훈, 2004). 하지만 여전히 교과전담교사의 전문성 부족, 교사의 소속감 결여, 예·체능 교과에 대한 특정교사 부족, 교과전담교사의 배치 기준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전담교사가 필요한 교과에 관해 조사한 결과 ‘음악교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신재희, 2014) 특히 타 교과에 비해 음악교과가 갖는 특수성에 기인하여 교사의 전문성 확보가 절실히 요구됨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음악수업에 대한 초등교사의 스트레스 요인 분석’에 관해 5가지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음

악전문성(45%), 교육환경(19.5%), 학생요인(14.5%), 교육전문성(9%), 수업(5%)으로 나타났다(정다운, 2011). 이는 음악교과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갖춰야 할 내적요인(음악전문성)이 외적요인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음악교과의 특수성에 기인하여 교사의 전문성에 의해 수업의 질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학부에서 심화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교과는 고려하지 않은 채 해당 초등학교 실정에 맞추어 음악을 심화교육과정으로 이수하지 않은 교사를 전담교사로 배정·운영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교과전담제가 시행된 지 25년이 지난 현재, 다른 교과의 전담제 운영에 비해 음악교과전담제 운영은 시행 초기 나타낸 문제점들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과전담제도의 최초 설립 목표가 잘 운영되려면 제도의 본질을 알고 제도에 맞게 현장에서 적용시켜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킬 필요가 있겠다.

2. 외국의 초등 교과전담제 운영실태

오늘날 세계 각국은 사회적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달, 교육여건 등의 많은 변화와 발전으로 인해 전통적인 교수조직인 학급담임제에 의한 활동만으로는 부족하여 새로운 교수 조직의 형태인 교과담임제가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교사에게 자신 있는 교과를 지도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많은 영향을 끼친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교과전담제의 운영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가) 미국

미국에서는 1789년 보스턴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전과 오후를 달리하여 읽기와 쓰기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교과전담제의 효시라 한다(우정남, 1980). 1900년 미국 뉴욕에서 시작으로 교과전담제가 적용되었고, 1900~1930년 사이에는 급속도로 확산되어 음악, 미술 등 일부 교과에만 전담교사를 배정·운영하였다.

미국의 교과전담제는 각 주마다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고, 대부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 기초과목은 학급담임 교사가 지도하고, 예·체능이나 특별활동 등 특정과목에 관해서는 교과전담교사가 가르친다. 학생들은 교과전담교사의 전문적인 지도를 통해 질 좋은 수업을 받을 수 있었고, 전문교사는 본인의 전공에 맞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았다. 일반교

사는 이로 인해 수업부담감이 없어지고 수업을 여유 있게 운영할 수 있었다.

미국의 초등학교(1~4학년)는 읽기, 말하기, 수학, 사회, 체육, 음악, 미국 등 8개의 교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읽기, 말하기, 수학, 사회, 과학 등 일반 교과는 담임교사가 지도하고, 음악, 미술, 체육 등의 교과는 특수 교실로 이동하여 전담교사가 지도한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교과전담제 운영에 있어서 교과전담교사와 일반교사와의 역할과 업무분담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2) 일본

일본은 1965년부터 초등학교 교육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요인을 분석·연구하였으며, 그 중에서 학급담임제 개선을 위한 연구가 추진되었다. 그 결과 학력향상과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교과전담제를 적용하였다(마숙자, 2009). 교과전담제의 대상 학년은 5, 6학년으로 하며 학급담임교사와 교과전담교사로 구분하여 조직하였다. 학급담임교사는 해당학급 학생들에게 3~6개의 교과만을 지도하게하고 나머지 교과에 관해서는 교과전담교사가 지도하였다. 결국 학생들은 담임교사 이외에 3명 이상의 교사들로부터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교과전담 적용 결과 학생의 개성과학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할 수 있고, 다양한 교사로부터 다면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었으며, 폭 넓은 인간형성이 가능해졌고, 학급 차의 해소 등 긍정적인 효과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의 수업태도에 일관성이 결여되고, 생활태도에 약간의 혼란을 가져오는 부정적인 측면도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다(정찬익 외, 1991).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비교해 볼 때 30년 정도 뒤늦게 교과전담제를 시행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는 시행하고 보급, 확대 시기가 빠른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교과전담제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예·체능 교과의 경우 전담교사가 수업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교사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의무적으로 배정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효율적인 수업운영이 어려운 경향을 보이고 있다.

Ⅲ. 전국 초등 음악전담교사 현황파악

본 장에서는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음악전담교사들을 대상으로 학부 교육과정에서 음악 심화교육과정을 이수하였는지, 그리고 이들이 교육현장에 어떻게 배치되어져 있는지 알아보고, 이에 따른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 음악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1. 연구 방법 및 자료 분석

우선 전국 초등학교 음악전담교사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17개 도교육청 산하 177개 지원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초등학교 수, 교원 수, 음악전담교원 수, 음악전담교사의 학부(대학교) 심화과정 음악교과 이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는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자료서비스(2014년 5월 10일, 자료요청)에 자료를 요청하였고, 17개의 도교육청과 177개의 지원교육청을 통해 해당 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자료 수거 기간: 2014년 5월 25일~2014년 10월 5일). 또한 해당 기관에서도 자료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연구자가 직접 각 학교 홈페이지 및 학교요람, 인터넷 상의 자료, 학교 관계자 또는 초등학교 음악 전담교사들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비율검정(proportion test)을 실시하였으며, 귀무가설로 ‘각 시·도별 음악전담교사의 비율이 같다.’라고 설정한 후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통계적으로 검정하였다. 그 결과, 카이제곱 통계량은 265.3322이고,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각 시·도별 음악전담교사의 비율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비율검정 측정방법이다.

<표 1> 비율검정(proportion test) 측정 방법

시도 수	카이제곱 통계량	P-값	
17	265.3322	<.0001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 교원 수를 파악하였으며, 음악전담교사 수와 음악전담교사의 심화교육과정에서 음악교과 이수여부는 ‘비율검정’을 통해 통계 처리하였다.

2. 초등 음악전담교사의 분포도

본 연구자는 전국 초등학교에 음악전담교사가 얼마나 배치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DB’를 통해 해당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 요청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초등학교 지역별 학교 수는 얼마나 되는가?

둘째, 우리나라 초등학교 지역별 교직원 수는 얼마나 되는가?

셋째, 우리나라 초등학교에 배치된 음악전담 교사 수는 얼마나 되는가?

다음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DB를 통해 파악한 자료이다(2014년 4월 1일, 조사 기준일).

<표 2> 시·도별 초등학교 수, 교원 수, 음악 전담교사 수

연도	학교급	시도	학교 수	교원 수	음악전담 교사 수	음악 전담 교사비율(%)
2014	초등학교	서울	647	29,613	901	3.04 %
2014	초등학교	부산	305	10,540	322	3.06 %
2014	초등학교	대구	218	8,971	256	2.85 %
2014	초등학교	인천	248	9,890	161	1.63 %
2014	초등학교	광주	151	6,001	157	2.62 %
2014	초등학교	대전	145	5,976	152	2.54 %
2014	초등학교	울산	119	4,346	133	3.06 %
2014	초등학교	세종	28	663	12	1.81 %
2014	초등학교	경기	1,210	42,753	1,012	2.37 %
2014	초등학교	강원	387	6,702	105	1.57 %
2014	초등학교	충북	259	6,482	167	2.58 %
2014	초등학교	충남	405	8,717	103	1.18 %
2014	초등학교	전북	420	7,989	103	1.29 %
2014	초등학교	전남	495	8,046	216	2.68 %
2014	초등학교	경북	521	10,036	208	2.07 %
2014	초등학교	경남	468	13,327	240	1.80 %
2014	초등학교	제주	119	2,620	71	2.71 %
2014	초등학교	총합계	6,145	182,672	4,319	2.36 %

우리나라 17개 도교육청을 기준으로 전국 초등학교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에는 6,145개의 초등학교가 있으며, 전체 초등 교원은 182,672명이다. 초등 교원 중 음악전담교원은 4,319명으로 전체 교원 수에 비해 음악전담교원 수는 2.36%에 해당하며, 이는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 전체 교사 수와 초등학교에서 지도하는 교과목의 수를 고려하였을 때 음악전담교사 수가 상당히 부족함을 나타내주고 있는 자료이다.

경기도 지역의 경우 학교 수 1,210개, 교원 수 42,753명으로 학교 수와 교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파악되었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학교 수 28개, 교원 수 663명으로 학교 수와 교원 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은 지역으로 파악되었다. 전국 초등학교 음악전담교사 수를 파악한 결과, 음악전담교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는 경기도 1,012명이 파악되었으며, 가장 적은 지역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12명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음악전담교사 수가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는 지역은 충남(1.18%), 전북(1.29%), 강원도(1.57%)이며,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지역은 부산(3.06%), 울산(3.06%), 서울(3.04%)이다.

3. 초등 음악전담교사의 현황파악

본 연구에서는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역별 음악전담교사 수를 조사하고 그들이 대학에서 심화교육과정으로 음악을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하였다. 전국 도교육청과 지역 교육청으로부터 자료 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은 문서 154건, e-mail 5건, 전화통화 35건, 총 194건이었으며, 도교육청과 지원교육청에서도 교사의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정보부존재'로 답변이 온 경우에는 본 연구자가 직접 각 지원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 수 및 교원 수를 조사하였다(자료수거 기간: 2014년 5월 26일~2014년 10월 10일). 각 지역별 음악 전담교사 수는 파악되었지만 학교별 음악 전담교사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에는 진공여부를 파악 할 수 없었기에 이번 조사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학부 심화교육과정으로 음악을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자가 학교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학교별, 자격종별, 교원현황을 파악해 자료를 수집하였다(2014년 8월 10일~2014년10월5일, 인터넷 접속).

다음은 본 연구자가 각 시·도별 초등학교 음악전담교사 현황을 파악한 조사결과이다.

첫째, 전국 초등학교에서 음악전담교사가 가장 많이 배치되어져 있는 지역은

부산(3.06%), 울산(3.06%)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적게 배정되어져 있는 지역은 충남(1.18%), 전북(1.29%)으로 나타났다. 둘째, 음악전담교사 중 대학에서 심화교육과정으로 음악을 이수한 교사를 가장 많이 배정한 지역은 경북(25.48%), 세종(25%)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적게 배정한 지역은 경기(9.10%), 제주(10.71%)로 나타났다. 셋째, 음악전담교사가 배정되어져 있지만 음악을 전공한 교사가 한 명도 없는 지역은 43개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넷째,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음악전담교사가 전혀 없는 지역으로는 충북 음성, 경북 예천, 양양, 경남 의령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초등 교과전담제가 시행한지 약 25년이 경과 된 지금까지도 음악교과의 경우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한 현실을 드러내는 결과라 볼 수 있다.

<표 3> 음악심화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담교사가 전혀 없는 지원교육청

각도별	학교 수	지원교육청 명
강원도	6	삼척, 홍천, 횡성, 평창, 화천, 고성
충청북도	6	제천, 보은, 영동, 괴산증평, 음성, 단양
경기도	1	파주
충청남도	6	공주, 서산, 금산계룡, 예산, 태안, 당진
전라북도	5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전라남도	9	광양, 담양, 구례, 장흥, 강진, 영암, 장성, 진도, 완도
경상북도	7	상주, 군위, 의성, 고령, 예천, 봉화, 영양
경상남도	3	밀양, 의령, 산청
합 계		43개 지역교육청

4. 초등 음악교과의 운영현황 파악

앞서 본 연구에서는 각 시·도별 초등학교 음악전담교사의 분포 및 현황을 양적으로 파악하였다. 초등학교 현장에서 음악전담교사 운영에 관한 문제점은 자주 언급이 돼 왔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는 선행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워낙 방대한 자료를 조사해야 하는 어려운 연구이기 때문이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도 전국 17개 도교육청 산하 177개 지원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초등학교 수, 교원 수, 음악전담교원 수, 음악전담교사의 음악 심화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4년 5월 26일~2014년 10월 10일까지 무려 5개월

이상 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초등 음악교육 현장을 파악하는데 양적 연구를 통해 수거된 자료 분석으로는 제한점이 있어 음악교과전담제 운영에 대한 초등 교사들의 의견을 구하는 조사연구를 병행하였다. 2014년 당시 전국의 음악전담교사 4,319명의 모집단 중에서 연구자 편의로 선택한 충남(N=167), 충북(N=103), 전남(N=103), 전북(N=216) 소재 초등 음악전담교사들(총 589명)을 대상으로 음악교과의 운영 현황을 묻는 간단한 설문도구를 학교 메일로 발송하였으며, 이 중 17%인 103명이 회신 응답하였다. 이들 103명은 개방형 문항에 복수 응답하였으며, 이를 질적 분석결과 음악수업 운영에 관한 어려운 점을 크게 8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었다(응답자 103명 중 복수응답으로 허용한 결과 N=119명의 코드 수거).

수거된 설문지를 파악한 결과, 응답자 103명 중 가장 많은 연령대가 30~40대(N=66, 64%)로 파악되었다. 음악전담교사를 맡고 있는 응답자 103명을 대상으로 학부(대학교)에서 음악 심화교육과정을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34명(33%)만이 이수하였고 69명(67%)은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수하지 않은 음악전담교사들(69명)의 학부(대학교)에서 심화과정으로 이수한 교과를 파악한 결과, 국어15명(14%), 사회(10%), 체육(8%)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현장에서 음악수업을 지도하는데 있어 학부(대학교)수업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음악 강좌가 무엇인지 복수응답하게 한 질문에 ‘초등음악지도방법론’ 47명(45%), ‘기악 및 피아노 실기’ 43명(42%), ‘국악실기’ 33명(32%) 등으로 나타났다.

학부에서 음악 심화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음악전담교사를 맡고 있는 이유를 객관식 문항으로 응답한 결과, 학교 운영방침 때문에 40명(38%), 응답하지 않은 경우 31명(30%), 기타 14명(13%)으로 나타났다.

학부(대학교) 심화교육과정의 음악교과 이수여부와 교육현장에서 전담교과목이 일치하여야 하는지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무려 79명(76%)이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초등 교육현장에서 음악 수업을 지도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에 대해 개방형으로 응답하게 한 결과, ‘교과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부족’ 28%(N=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음악 기자재’ 26%(N=31), ‘학생들의 흥미부족’ 11%(N=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선 ‘교과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부족’(28%, N=34)이 어려운 점이라고 응답한 교사들의 응답 문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교과서에 나오는 여러 악기들을 잘 다루지 못함(N=12)
 교과서에 나오는(화성 및 음계와 같은) 이론 지도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지도하기 어려움(N=7)
 음악 지도 방법이 부족하여 이론위주, 가창위주의 수업이 됨(N=7)
 음악 실기 부분이 어려워 수업 진행이 매끄럽지 못함(N=4)
 노래를 부르는 것 이외에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막연함(N=4)

실제 음악전담교사들이 ‘음악 교과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현장 지도에서의 어려운 점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대학교) 심화교육과정의 이수여부와 교육현장에서 전담교과목이 일치하여야 하는지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무려 79명(76%)이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한 사실은 상당히 이해상충되는 결과이다. 응답자의 2/3가 음악 심화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음악전담교사인 현실에서 ‘음악교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라고 응답한 것은 상당히 솔직한 대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79명(76%)이 ‘학부에서 음악심화교육과정을 비 이수하였으면서도’ ‘괜찮다’라고 응답한 사실에 대해 본 연구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었다. 첫째, 임용 후 교사연수 등을 통하여 음악적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거나 둘째, 음악교과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의존하여 지도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파악된다. 이 경우 안타깝지만 상당수의 학생들이 음악수업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을지 염려된다.

두 번째로 초등 교육현장에서 음악 수업을 지도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으로 지적한 점은 ‘음악 기자재 부족(N=31, 26%)’이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악기 부족(피아노, 장구, 큰북, 작은 북)에 대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였으며, 음악시설(오디오, 음향 및 방음시설 등)노후 및 악기관리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이들의 응답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초등학교에 음악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방음시설이 안된 좁은 교실에서 음악 수업을 진행하여야 하고, 따라서 리코더나 교구용 타악기를 제외한 큰 악기(피아노, 장구, 큰북, 작은 북 등)를 보유할 수도 없고 활용할 수도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그 외에 음악 기자재에 관한 의견으로는 학교에 음악실이 없어 마음 놓고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학교에 준비된 악기가 있다하더라도 너무 오래되거나 저렴한 악기들로 구성되어 있어 수업에 활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학교 관리자들도 음악 기자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을 운영함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었다.

이 외에 의견으로 초등 고학년의 경우 교과내용의 난이도가 높아져 교과내용을 설명하기도 힘들고(N=7), 특히 국악 실기 및 이론 등의 경우에는 내용이 어려워 자료를 찾아보아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으며(N=9), 피아노 실기가 부족해 ICT를 활용한 미디반주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N=2)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IV. 결론 및 제언

초등교원의 수업시수를 줄이고 전공교과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과전담제가 시행 된지 벌써 25년이 지났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 비슷한 시기에 교과전담제를 시행한 일본은 보급 및 확대가 빠르게 이루어진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도 교과전담제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초등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심화교육과정을 통해 교과전담교사로 양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교과전담제도’의 목적과는 다르게 교사를 배치, 운영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견된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초등교사 및 음악교육자들에 의해 자주 언급이 돼 왔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는 선행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 본 연구가 갖는 의미가 크다고 판단된다.

초등 교원을 양성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예비 초등 교사들이 심화교육과정으로 음악을 선택한 경우, 이들이 교육현장에서 음악전담교사로 배치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 양성한다. 하지만 현실은 학교장의 권한이나 학교 행정상의 이유, 또는 교사의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교과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있었다. 실제,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의 응답을 살펴보면 소속 초등학교에 음악교과전담교사가 배치되지 못하여, 모든 담임이 음악수업을 맡아 지도하여야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이 때 담임교사의 역량에 따라 음악수업의 질이 달라진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체육교과의 경우, 학생들의 안전과 결부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어 2011년 1학교 1전담교사제를 의무화하고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 배치 될 계획이다. 대상은 초등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신규 교사나 기존 교사 중 체육을 심화과정으로 이수한 자를 우선 배치하되 비 이수 전담교사는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수과정을 의무화 한 사례도 있다. 또한 전담 배치순서가 일반적으로 영어, 체육, 과학, 음악, 미술 순서로 되어 있어, 학생 수가 부족한 학교의 경우 음악전담교사를 배치하지 못해 담임교사가 가르쳐야 하는 현실이라고

토로하였다. 특히 규모가 작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교과전담교사 배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한 명의 교사가 여러 학교를 옮겨 다니며 수업을 운영하는 어려운 상황을 발견하게 되었다. 실제 본 연구 <표 3>에서 밝혔듯이 음악심화과정을 비이수하고 전담교사로 배정되어진 지원교육청이 전국에 무려 43개에 이르는 사실은 초등음악교육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결과라고 판단된다.

초등학교 교과전담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교과 전문성을 고려한 교사배치는 시급하며 특히 초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기관에서는 인구의 유동과 사회적 구조 변화에 따라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교사 수급을 결정하는 것이 전문성을 갖춘 교사 배정보다 우선시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와 같이 예외적인 상황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하다보니 교과전담제 시행이 어언 25년이 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여전히 이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짚어 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톱니바퀴 돌아가듯 여러 가지 원인이 얹혀있는 복잡한 교육 현실에서 한 가지 원인만을 수정한다고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전문성을 갖춘 음악교사 양성을 위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교과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교사의 심화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고려한 전담교사 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체육 교과의 경우 초등학교 뿐 아니라 중·고등학교에도 전문성을 갖춘 교사 배정이 의무화되고 있다. 2011년에 발표된 ‘학생 체육 활동 활성화 방안(교육과학기술부, 2011)’에 의하면 각 초등학교에 체육전담교사를 1명씩 의무 배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체육 교과전담제도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올해 2017년까지 초등 체육전담교사는 전국적으로 확대 배치될 계획이며(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2015), 현재의 초등 체육교과전담제도는 다수의 초등교사에게 학급담임교사의 체육수업 전문성 부족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조치로 인식되어 환영받고 있다(장용규 외, 2013). 초등 체육교과전담제도가 확대되는 사례를 바라보며 이와 같은 제도적 정착이 음악교과에도 적용되어 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초등학교 내 음악실 설치와 악기 지원과 같은 음악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학생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음악교사가 그들의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스스로 사회적 지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야 한다. 발달과정상으로 볼 때 초등학교 시기의 음악교육은 중·고등 뿐 아니라 평생에 걸친 음악교

육의 발판이 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결국 학교 음악교육의 성패는 결국 초등학교 시기의 음악교육에 달려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음악교육의 특성상 초기 교육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아직도 국내 많은 초등학교에 음악실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많은 교육행정가와 초등 교사들이 아직도 음악교육과 교수법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 자치 행정기관의 인식 변화와 함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하기 때문에 음악교사 뿐만 아니라 음악교육 전문가들의 끊임없는 연구 및 호소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음악교과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사연수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때, 교사 연수 대상은 단지 학부에서 음악심화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와 비 이수한 교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초등학교에서 비음악 전담교사 및 예술교육 관련 행정을 담당하는 교원(예, 교장과 교감 등)으로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음악전담교사에게는 음악적 전문성을 함양시키고, 동료 초등교사와 학교 행정가에게는 음악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시킬 수 있는 노력을 끊임없이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문규 외 (1992). 초등학교 예·체능 교과전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초등교육연구**, 2, 3-46
- 김선혜 (2004).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의 학교생활에 나타난 몰입과 소외. **한국교육**, 31(4), 27-51.
- 교육과학기술부 (2011). **학생체육활동 활성화 방안**.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2015b). **학교체육 주요업무계획**, 서울: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 교육부 (2001).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7142호 일부개정.
- 마숙자 (2009). 중·초 교사의 교직 적응 실태와 초등교원의 교과전담제 인식 분석,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문경숙 (2009). 초등학교 음악교육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탐색. **이화음악논집**, 13(1), 94-133.
- 배종근·정태범 (1991). **교육행정·교육경영**. 서울: 정민사.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1989), **교육학 용어사전**, 서울: 배영사.
- 석선혜 (2005). 초등학교 음악전담교사의 음악 전문적 자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성기훈 외 (2001). 초등학교 교과전담 교사제도 개선 방안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원 연구원**, 13(1), 315-352.
- 우정남 (1980). 초등학교의 새로운 교수조직. **교육연구 통권, 제 140호**, 서울: 한국교육생산성연구소.
- 이공훈 외 (1996). **열린 시대 교육 개혁본**. 서울: 도서출판 하우.
- 임미경 (2003). **교과교육 전담교사 양성프로그램 개발**. 서울: 한국 교육인적자원부.
- 장기범 외 (2006). **음악 심화과정 프로그램 개발**.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장용규 외 (2013).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배치에 관한 연구**. 교육부.
- 정다은 (2011). 음악수업에 대한 초등교사의 스트레스 요인 분석. **음악교육연구**, 40(3), 25~58.
- 조순이 (2016). 초등학교 음악전담교사의 가창지도에 대한 인식 연구. **음악교육연구**, 45(2), 251~274.
- 최미영 (2015). 초등학교 예비교사의 음악교수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요구 분석.

음악교육연구, 44(2), 163~184.

최유리 (2008). 초등학교 교과전담제에 관한 교사의 인식도와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한재봉 (1991). 초등학교 교과전담제의 효과성. **새교실**, 424권, 11호. 서울: 한국교육신문사.

참고사이트

「교육부」 www.moe.go.kr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http://www.eduhope.net/>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자료서비스」 <http://www..kedi.re.kr/>

「학교 알리미 사이트」 www.schoolinfo.go.kr

「2014년 9월 22일자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ABSTRACT

A study of the Operation of Elementary School Music Instructors in charge

Sumi Kwon · Hey-jin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and the operation of elementary school music instructors in charge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future development for educating musicians with professionalism.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elementary school music instructors in the 17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and 177 supporting education offices nationwide whether they qualified the advanced music courses in their college level. The 103 music teachers among the 589 elementary music teachers in Chung-nam, Chung-buk, Jeon-nam, and Jeon-buk area were surveye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subject-based system' was operated differently from the purpose of elementary education in Korea. Most music teachers were placed according to the authority of the school principal, reasons for school administration, and personal reasons for teachers. The result of this research revealed that it is urgent to arrange the teachers considering their specialization of the subject in the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management. Furthermore this research suggests that various teacher training programs should be provided to improve the music education environment of the elementary school and to enhance the professionalism of the music curriculum.

Key words: elementary school, subject-based system, music teachers, music education

투고일: 5월 30일, 심사(수정): 7월 17일(8월 10일), 게재확정일: 8월 12일